

여성장서(Women's Collection)개발과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

(Korean Women's Writings & Works Center)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장
박 온 자

〈목 차〉

1. 서 론	2.4. 사업추진현황
1.1. 연구목적	3.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의
1.2. 선행연구	여성장서 분석
2.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개관	3.1. 한국여성저술활동상황
2.1. 설립목적	3.2. 한국여성음악창작활동상황
2.2. 설립배경	4. 결 론
2.3. 사업목표	참고문헌

1. 서 론

1.1. 연구목적

여성에 의한 창작물은 여성의 생애, 여성의 활동, 여성의 경험을 나타내주는 거울과 같다. 인류 역사상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은 열심히 창조하고 가르치며 활동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이사회에 공헌한 내용이나 그들의 생각이 글로 쓰여진 것들이 학문의 구조, 추세, 사건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제도적인 성차별의 결과로 생긴 여성의 부재를 조명해보기 위해서는, 즉 문학에서, 예술

에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고, 여성의 강점, 특성을 밝혀내어 여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으려면 이와 관련된 여성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로서 여성에 대한 자료, 여성을 위한 자료, 또 여성에 의한 자료로 구성된 여성장서개발이 필요하다.

우리 한국 여성들도 글을 배우고 정규교육을 받고 여권이 신장되는 오랜 기간동안 많은 창작물을 남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여성들의 창작활동 상황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연구결과나 기록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문제,

여성운동, 여성학과목 개설, 여성학과 설립 등으로 이전보다는 여성관련 화제가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앞으로 여성의 힘이 우리 사회문화 발전에 보다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운동이 펼쳐져야 할 것이며, 여성이 지난 장점을 장려하고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여성들이 이루어낸 업적을 발굴하여 이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 관리함으로써 한국여성의 지적, 문화적 유산을 보존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보다 질적이고 수준 높은 활발한 여성연구를 유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주로 여성학과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여성학장서가 홀륭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들 장서개발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에서는 여성학분야의 핵심자료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들이 남긴 창작물과 창작정보를 집중적으로 발굴, 수집, 정리하여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한국여성저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여성들이 쌓아온 업적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장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서의 내용면에서 한국여성저작센터의 장서개발은 국내의 다른 여성장서와 구별이 되며, 이러한 종류의 특수장서개발은 국내에서 아직 시도된 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성연구를 위한 유일한 정보원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그 가치는 커질 것이다.

일찍이 여성고등교육을 맡아온 미국의 여

자대학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귀중한 여성장서가 개발 유지되어 오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로는 사회변화에 맞추어 여러 관점에서 여성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교육과정 및 연구를 뒷바침하기 위해 여성장서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이 많아졌으며, 또 희귀하여 널리 보급될 수 없거나 묻혀버린 여성저작물을 발굴하여 전산파일로 만들어 보급하는 여성저작물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들도 많아지고 있다. 인쇄물과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아낸 중요한 여성장서개발 사례와 여성저작물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2. 선행연구

여성장서의 발전은 여성해방운동(페미니즘 운동)과 연결 지을 수 있다.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여성들이 쓴, 여성을 위한, 여성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해 왔지만 이는 남성중심에서 본 장서개발이었고 또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장서개발이었다. 그러나 성의 불평등에 도전하여 정치적, 문화적, 지적 변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여성중심에서 본 여성의 공적 역할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강력한 힘은 여성(학) 자료실의 틀을 제공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에 강하게 일어났던 페미니스트 운동에 관한 자료들을 보존할 기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1935년 페미니스트였던 Rosika Schwimmer와 역사학자인 Mary Beard에 의해 여성자료관,

즉 WCWA (World Center for Women's Archives)가 설치되었다. 이 자료관은 여성 관련 세미나, 연설, 연구활동을 뒷바침 하였으며 여성운동과 여성학을 연결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 후 경제불황과 전쟁의 발발은 페미니즘운동을 약화시켰지만 페미니즘 운동에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하여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여성장서가 눈부시게 발전되어 갔다. 그 결과로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장서, 즉 스미스대학(Smith College)의 여성장서인 The Sophia Smith Collection(1942)과 래드클리프대학(Red Cliffe College)의 여성장서인 Schlesinger Library on the History of Women in America(1943)가 설립 유지되어 오고 있다. (Hildenbrand, 1986. Pp. 1-3, 박온자, 1997. P. 155).

1) 스미스대학(Smith College)의 여성장서
<http://www.smith.edu/libraries/special.htm>

스미스대학의 여성장서는 1) College Archives 와 2) The Sophia Smith Collection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전물에 소장되어 있으며 관장이 따로 있다. 이중 The Sophia Smith Collection은 1875년에 설립되었으며,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온 스미스여자대학의 교육이념에 따라 발굴, 수집된 여성의 생애에 대한 많은 기록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The Sophia Smith Collection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여성자료뿐만 아니라 현대여성에 관련된 자료, 특히 여성의 생애 개척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소장

하고자, 여성에 관한, 여성에 의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여성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에 혼합시키기 위해 문학작품 외에 예술, 인문과학, 교육, 보건 및 건강, 산업, 평화, 전문직 심리학, 산아제한, 여성운동, 자연과학, 성역할, 스포츠, 사회개혁운동가, 리포터, 통계학자 등의 여성저작들을 수집해오고 있다. The Sophia Smith Collection은 여성의 지적, 사회적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여성장서로서 래드클리프대학(Radcliff College)의 여성장서인 The Arthur and Elizabeth Schlesinger Library on the History of Women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장서이다.

스미스대학 문서관(College Archives)은 1879년부터의 졸업생 명단, 성적, 가정으로 보낸 편지, 졸업생들의 연구물, 동창생들의 글, 학생들의 활동 기록물 등을 수집 보관 해오고 있다. 소장자료의 예를 들면 1891년 이후의 대학의 모든 발행물, 메모(memoranda), 각종 문서파일, 강의자료, 전물관련 자료, 교수진, 경영문서, 방문객 명단, 클럽, 행사기록, 학교에 대한 개인 편지, 사진, 스미스대학에 관한 신문기사 스크랩 등이다.

2) 래드클리프대학(Redcliff College)의 여성장서(King, 1986. PP·75-100)

래드클리프대학의 여성장서인 Schlesinger Library on the History of Women in America는 특히 필사본, 회귀본을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국의 국가적인 보물창고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생애, 활동, 흥미,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는 미 납본자료들(undeposited source materials)을 조직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소장자료는 미국 여성들의 공적, 사적 생애와 역사에 관한 자료들로서 여성의 권리, 사회개혁운동, 노동운동, 가족사, 정부활동, 정치운동, 여성운동, 여성의 전문직 등 여성의 역사를 다룬 다양한 문헌들이다. 문헌의 형태도 다양하여 19세기와 20세기에 미국 여성에 관련된 사회 역사(social history) 저작물인 단행본과, 원고, 정기간행물, 사진, 일시적으로 나온 자료들, 오威尔히스토리 자료, 시청각 자료 등으로 되어 있다. 현재 Schlesinger Library 주관으로 A Century of Women(1994), Women of Courage: An Exhibition of Photographs by Judith Sedwick (1984), New Points in Women's History(1994) 등과 같은 주요 여성 관련 자료들과 회의록 등이 발행되고 있다.

3) 텍사스여자대학(Texas Woman's U.)의 여성장서 <<http://www.twu.edu/library/womans/>>

1901년 대학 설립 당시부터 텍사스여자대학교 도서관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여성작가들, 즉 Austin, Elizabeth Browning, Charlotte Mary Yonge, Kate, George Eliot 등의 저서와 여성에 관한 저서들을 모았으며, 1932년 공식적으로 여성장서(Woman's Collection)로 명칭을 붙혀 특수장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텍사스 주와 미국의 남서지방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와 여성에 관한 자료를 많이 소장하고 있어서 미국의 귀중한 여성 연구자료로 꼽히고 있다. 여

성관련 세미나 자료로부터 폐미니스트 이론서, 다양한 참고자료, 정기간행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소장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17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적 범위로 수집된 음식(food)과 식이요법(herbal remedy)에 관한 장서인 Cookery Collection은 요리의 역사를 통해 미국 사회를 알 수 있는 특수장서이다. 1975년부터 독립된 방으로 이사를 했고, 1977년 이후 전담 사서가 배치되어 특별 지원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4) 브라운대학 여성작가 프로젝트(The Brown University Women Writers Project) <<http://wwp.stg.brown.edu/index.html>>

1986년부터 브라운대학은 미 국립 인문과학 진흥원(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앤드류 멜런 재단(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 로드아일랜드 주 인문과학위원회(The Rhode Island Committee for the Humanities), 애플 컴퓨터 회사(Apple Computer, Inc), 그 밖의 많은 개인 후원자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현대 여성 저작물의 전산화 프로젝트(Women Writers Project)을 추진하고 있다.

브라운대학의 여성작가 프로젝트는 1980년대 말에 번창했던 현대 여성연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대 여성들의 저작물이 사회 문화면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을 밝히고 이를 우리 사회의 비전으로 제시하기 위해 여성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원문 전체를 전자파일로 만들 수 있는 전

자기술이 보급됨에 따라 오랫동안 사장되어 있어 알 수 없거나 구하기 힘든 여성 저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게 되어 브라운 대학의 여성작가 프로젝트가 가능하게 되었다.

처음 5년동안 200여건의 여성 저작물을 전자파일로 만들고 이로부터 수업과 연구를 위해 초안을 인쇄물로 만들어 공급하였으며, 그 중 선정된 자료들은 Oxford University Press를 통해 인쇄본으로 발행되어 판매되고 있다. 1997년에는 전자본으로 만든 저작물이 수업과 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Renaissance Women Online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앨버타(Alberta) 대학에서 수행하는 The Orlando Project와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5) 올랜도 프로젝트(The Orlando Project:
Building Digital Resources for an
Integrated History of Women's Writing
in the British Isles) <<http://www.ualberta.ca/ORLANDO/orlando.htm>>**

올랜도 프로젝트는 영연방 제도에서 나온 여성 저작물의 역사를 학술적으로 규명해보고자 이루어진 5년간의 연구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캐나다의 인문사회과학 연구 이사회(Canadian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Research Council)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앨버타 대학(U. of Alberta)의 인문과학연구소에 소속된 학자들과 사서들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시대별로 구분하여, 즉 1820- 1890, 1880- 1945, 1939- 현재까지로 구분하여 근래

페미니스트들과 여성 저작자들이 이슈로 삼고 있는 영국 여성 저작물(British Women Writings)을 전자파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6) 텍사스대학(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여성 및 성 연구 장서 프로젝트
(Archives for Research on Women and Gender Project)**

<<http://www.lib.utsa.edu/Archives/arwg.html>>

샌 앤토니오에 위치하고있는 텍사스대학 도서관에서 수행하고있는 Archives for Research on Women and Gender Project는 미국 전역, 즉 Alabama주부터 Wyoming 주에 이르기까지 각 주에 소재한 도서관에 소장된 여성자료, 즉 여성이 썼거나 여성단체관련자료를 웹으로 연결하는 프로젝트이다. 링크 수는 150여 개 이상이며, 주마다 수적으로 차이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매사추세스 주, 텍사스 주에 특히 여성장서가 많으며, 캐나다, 네델란드,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등 미국 밖의 국가에 소재한 여성장서에도 링크되어있다.

**2.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
(Korean Women's Writings
& WorksInformation
Center: KWIC) 개관**

2.1. 설립목적

한국여성저작센터에서는 여성장서를 개발하

고 이를 운영한다. 여성장서란 여성에 관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저작물을 수집, 보존, 이용하기위해 개발되는 특수장서이다. 이러한 특수장서 개발을 통해 보다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한국 여성들의 창작활동 상황과 여성들이 문화적으로 이사회에 끼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여성들 자신이 남긴 지적 유산을 면밀히 검토 분석함으로써 여성의 특성, 장점을 파악하여 이를 홍보, 장려할 수 있고, 또 여성의 단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으므로, 여성개발, 여성평가를 위한 연구자료로서 여성장서가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는 지식 정보 기반 사회인 21세기에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여성의 사상과 아이디어, 창작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성숙한 사회문화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여성학 관련 핵심자료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에 의한 창작물 및 창작정보를 파악, 수집, 보존, 이용, 홍보할 수 있는 여성장서개발을 통해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고자 1999년 12월 6일 설립되었다.

1) 여성학 발전에 기여

여성장서는 여성의 생애와 활동, 여성의 경험, 여성연구에서 문제 삼는 이슈들을 분석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자료이다. 여성의 경험이 포함되지않은 이성(理性)과 지식은 이세상의 반쪽만을 소유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학술적, 대중적 자료들을 집합해놓은 여성장서를 통해 여성연구에 필

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여성 창작물 정보센터 역할

한국 여성들의 창작 정신이 담긴 모든 형태의 정보원을 발굴, 수집, 정리, 보존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한국여성 창작물 정보센터로 활용될 수 있다.

3) 여성의 지적 유산의 집합체 역할

한국 여성들이 남긴 지적 유산을 조사, 발굴하여 이를 조직적으로 정리, 보관,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한국 여성에 대한 문화적인 기억을 성문화(codification)하는 일로서 한국여성의 지적 유산을 총괄하는 귀중한 국가자료관(national archives)이 될 수 있다.

4) 국내외 유일의 특수장서 역할

한정적인 발행 부수로 인하여 단기간에 품절되거나 구하기 어려운 여성저작물을 본 센터를 통해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이는 여성자료의 보고(寶庫)로써 국내외적으로 유일하고도 귀중한 특수장서가 될 수 있다.

5) 세계적인 여성 자료 센터 역할

한국 여성 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한 세계적인 여성 자료 센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여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한국여성 저작물의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2.2. 설립배경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 재단법인 United Board for Christian Higher Education in Asia로부터 \$50,000을 받아 여성장서(Women's Collection) 구축을 추진해 왔다.

다. 전세계적으로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는 여성장서구축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다음과 같은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 추진해가고 있다.

2.3. 사업목표

· 1999년도

한국여성 저작정보시스템구축 및 정보제공 현재까지 발행된 한국여성저작의 발굴, 수집, 정리, 보존, 이용을 위한 업무

· 2000년도

한국여성 음악정보시스템구축 및 정보제공 현재까지 발표된 한국여성 음악작품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이용을 위한 업무

· 2001년도

한국여성 미술정보시스템구축 및 정보제공 현재까지 발표된 한국여성 미술작품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이용을 위한 업무

· 2002년도

한국여성 공연정보시스템구축 및 정보제공 현재까지 발표된 한국여성공연작품정보의 수집 정리, 보존, 이용을 위한 업무

· 2003년도

기타 한국여성 창작정보시스템구축 및 정

보제공

한국여성에 의한 모든 창작정보를 가능한 완전하게 수집 정리하여 이를 보존하고 이용을 위한 업무

2.4. 사업추진현황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는 1999년도 사업계획인 한국여성 저작정보시스템구축 및 정보제공과 2000년도 사업계획인 한국여성 음악정보시스템구축 및 정보제공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 한국여성 저작 및 창작물 정보의 지속적인 수집

한국여성에 의해 쓰여진 저서 및 예술 창작물, 공연물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 수집하고 있다.

2) 한국여성 저작 및 창작물 정보의 조직적인 정리

한국여성저서와 창작물의 서지정보로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KWIC 웹사이트를 통해 기계검색이 가능하며, 또 한국여성저작목록을 보고 수동검색이 가능하다.

3) 정기간행물 발행

한국여성저작목록, 한국여성저자인명을 연간으로 발행하며, 뉴스레터, 회원명부를 발행하고 있다.

4) 웹사이트 운영

KWIC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여성저작의 서지정보와 한국여성인명 검색이 가능하며, 센

터 소장자료 중에서 선정된 여성 저작들을 안내하는 서평 글을 읽어볼 수 있다. 또 저작권이 해결된 여성저작의 원문을 읽어 볼 수 있으며, 국내외의 유명한 여성장서를 링크를 통해 방문해볼 수 있다.

- ⑦ 출판사 목록 조사
- ⑧ 학회회원명부 조사
- ⑨ 일간 신문 서평란 조사
- ⑩ 지역 동인지 조사
- ⑪ 여성단체 조사
- ⑫ 서울여대 도서관 서가조사 (여성저작 파악한 후 광고에 소개된 다른 저작 파악)
- ⑬ 번역 협회 회원 명부조사
- ⑭ 국립중앙도서관 서가조사
- ⑮ KERIS 종합목록 검색
- ⑯ 여성저작물 수집방법

① 기증

1997년부터 기증의뢰편지 1686건 발송하였고 기증자 879명으로부터 1295권을 기증 받았으며 앞으로 계속 기증본을 받을 수 있도록 기증의뢰가 이루어 질것이다.

② 구입

1997년부터 2000년 11월 30일 까지 4031권의 여성저작을 구입하였다. 2000년 11월 말 현재 전체 소장 도서수는 5226권이다.

③ 제작

저작권이 해결된 여성작품을 KWIC 웹사이트에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50여명의 여성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위임 받아 놓고 있다. 또한 지금 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한국여성에 의해 쓰여진 고전작품을 발굴하여 KWIC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하고 인쇄본으로도 발행할 계획이다.

3.1. 한국여성 저술활동상황

3.1.1. 자료의 수집

여성저자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한국여성저자의 인명이나 그들의 저서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도구가 없기 때문에 여성저자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1) 수집범위

해방이후 현재까지 전 주제분야에 걸쳐 한국여성에 의해 쓰여진 단행본을 수집대상으로 하였다.

2) 여성학 자료 및 여성 저자 파악방법

- ① 연세대, 이대, 숙대 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조사(여성학분야)
- ② 한국 여성인명록 조사
- ③ 연합연감 등 각종 신문사 연감 조사
- ④ 대학연감, 사립대학 명부, 국 공립 대학명부 조사
- ⑤ 각 대학 홈 페이지 조사
- ⑥ 한국여성문학 인명부(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 여성문학인회) 조사

3.1.2. 자료조직 방법

한국문헌자동화형식(KOMARC)에 따라 Vintage 프로그램(삼보정보개발)을 사용하여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서지정보를 입력하므로 한국여성저작 서지정보시스템은 수시로 개선이 이루지고 있다.

막기위해서는 여성저작에 관심을 두고 수집할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1.3. 소장자료 분석

1) 한국여성저작의 발행 연도별 분석

아래 <표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90년대에 한국 여성들의 저술활동은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저서(4108종)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는 최근 10년간(1990-1999)의 국내 총 출판 도서수(281,264종, 출판연감, 2000. P.125)의 (1.5)%에 지나지 않으므로 한국여성의 저술활동은 별로 활발치 못한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1996년부터 여성장서개발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한국여성이 쓴 저서를 집중적으로 발굴 수집하였기 때문에 1990년대의 여성 저서수가 현저히 많다고 한다면, 이는 1980년대 이전에서와 같이 자료가 유실되는 현상을

2) 한국여성저작의 주제별 분석

한국여성저작을 듀이십진분류법에 의거하여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문학분야가 가장 많아 전체 저작물의 반 이상(2792종, 53 %)을 차지하며, 그 다음 사회과학(732종), 기술과학(594종), 예술(349종), 종류(202종), 철학(199종), 종교(139종), 언어(80종), 역사(84종), 순수과학(55종) 순으로 여성저작이 많이 생산되었다(표2 참조). 각 주제별로 여성저작이 많은 분야는 종류에서는 문헌정보학분야, 철학에서는 심리학 분야에 여성저작이 많으며, 종교에서는 기독교분야의 간증서, 체험담, 실천서가 많다. 사회과학에서는 여성학분야 자료가 많으며, 순수과학에서는 생물학분야, 기술

<표 2> 여성저작의 주제별 소장상황

(2000/11/ 30 현재)

출판연대	권 수	비 율(%)
1950년대	2	0.03
1960년대	42	0.80
1970년대	166	3.18
1980년대	454	8.69
1990년대	4108	78.61
2000년11월	454	8.69
총 계	5226	100

* 여성저작에는 저서, 공저서, 번역서가 모두 포함됨.

주 제	권 수	비 율(%)
총 류	202	3.87
철 학	199	3.81
종 교	139	2.66
사 회 과 학	732	14.00
언 어	80	1.53
자 연 과 학	55	1.05
기 술 과 학	594	11.37
예 술	349	6.68
문 학	2792	53.43
역 사	84	1.61
총 계	5226	100

* 문학 $2792/5226 * 100 = 53.4\%$

〈표 3〉 세부주제별 여성저작 소장상황

분야	세 부 분 야	수량	분야	세 부 분 야	수량
총류	총류	127	어학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1
	서지학	1		기타언어	25
	도서관과 정보학	43		소 계	80
	일반정기간행물	6	순수 과학	순수과학	12
	일반단체, 학회	1		수학	7
	신문	10		천문학	1
		14		물리학	1
철학	소 계	202		화학과 응용과학	4
	철학	4		인류학, 생물과학	16
		5		식물학	8
	순수철학, 형이상학	2		동물학	6
	인식론, 원인론, 인류	10		소 계	55
	특이한 현상	7	기술 과학	의료과학 약	284
	특별한 철학학파 및 관점	3		기술과 연합작용	2
	심리학	133		농학과 관계공학	5
	논리학	1		가정경제와 가족생활	220
	윤리학	20		관리와 보조서비스	47
	고대, 중세, 동양철학	10		화학공학과 관련공학	7
	현대서양철학	4		제조공업	11
종교	소 계	199		특별한 용도를 위한 생산	18
	종교	5	예술	소 계	594
	기독교 종기 및 성서	12		예술	51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신학	9		도시와 풍경	2
	기독교윤리 및 경전신학	56		건축학	11
	지역기독교교회와 기독교수도회	11		조각	7
	기독교 사회신학 및 교회	25		그림, 장식예술	53
	교회사, 지리적, 역사적 인물 취급	2		음악	140
	그리스도 교회의 교파 및 종파	1		레크레이션과 공연예술	85
	불교, 기독교 이외의 제종교	18		소 계	349
사회 과학	소 계	139	문학	문학	101
	사회과학	276		한국문학	2338
	정치학(정치와 정부)	24		영미문학	173
	경영경제학	39		독일문학	28
	법률	15		프랑스 문학	58
	공공행정과 군사학	5		스페인, 포르투갈 문학	3
	사회문제와 서비스:공공단체	62		기타문학(중국문학, 일본문학 등)	91
	교육	207		소 계	2792
	상업, 의사소통, 운송	4	역사	역사	2
	관습, 예절, 민속	100		지리와 여행	28
어학	소 계	732		전기, 계보학, 휘장(insignia)	18
	언어학	25		고대세계사(-A.D.499)	2
	한국어	29		유럽의 역사(서부유럽)	5
	영어	17		아시아 역사	28
	게르만어(튜튼어) 독일어	1		북아메리카역사	1
	라틴말 계통의 근대어, 프랑스어	8		소 계	84

과학에서는 가정경제와 가족생활, 간호학 관련 저서가 많은 편이며, 특히 컴퓨터이용에 관한 저서가 많다. 예술분야는 예술가의 전기서와 공예, 장식분야 저서가 많다. 또 음악분야는 이론서가 많으며 지리역사에서는 여행서가 많다(표3 참조).

3.2. 한국여성 음악창작 활동상황

3.2.1. 자료수집

1) 음악자료 수집 범위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는 한국 여성 음악인이 남긴 창작물의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고자 한다. 창작물에는 음악관련 저서, 악보, 공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음반(CD), 비디오 테이프, 필름 등이 모두 포함된다.

2) 한국여성 음악창작정보 파악 방법

다음과 같은 여러 곳을 참고하여 여성음악인을 조사하였으며, 누락된 한국여성음악들을 조사하여 계속 보충해 가고 있다.

- ① 음악인수첩(대한음악사, 2000) 조사
- ② 한국여성작곡가회 회원록(1991) 조사
- ③ 음반목록 조사(뮤직서치, 2000)
- ④ 오디오 CD목록 조사
- ⑤ 케이블 TV 프로그램(A& C Cable TV) 조사
- ⑥ 국립중앙도서관 서가 조사(예술분야)
- ⑦ 주요 일간 신문 조사
- ⑧ 기타

3) 수집방법

한국여성작곡가회 회원(111명)들에게 악보기증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한국음반협회를 통해 각 음반 제작사에 가요음반기증의뢰 공문을 발송하였다. 대중가요분야는 앞으로 계속 기증을 통해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어서 아래 기증자료통계에서 제외하였다. 기증이 어려운 클래식음악 분야와 국악분야의 음반은 구입방법을 택하였다. 올해 10월 현재 말기증자료는 30종, 구입자료는 375종이다.

〈표 4〉 한국여성음악자료 기증 및 구입
자료 현황

(2000/11/30 현재)

	수 량	비 율(%)
음 반	235	58.02
도 서	104	25.68
비 디 오	48	11.85
악 보	16	3.95
*기 타	2	0.49
합 계	405	100

*기타자료는 팜플렛 자료임

3.2.2. 한국여성 음악창작정보 분석

1) 한국여성음악 창작물의 연대별 분석

1970년대 이전에 한국 여성들이 남긴 음악자료들은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50년대, 60년대 자료로 파악된 악보4점은 한국 최초의 여성 작곡가인 김순애씨의 악보집으로, 그 자료가 발간되었다는 정보만 알 뿐이다(낭만음악, 통권 11호. PP. 223-243). 한국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음악자료는 90년대에 나온 것이 대부분이다. 음반은 CD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표 5〉 한국여성음악 창작물의 연대별 분석

(2000년 11월 30일 현재)

	도서	음반	악보	비디오	합계	비율(%)
1950			3		3	0.26
1960			1		1	0.09
1970	5		20(7)		25(7)	2.20
1980	10(6)	22(9)	117(2)		149(17)	13.12
1990	175(88)	473(190)	8(7)	38	694(285)	61.09
2000	14(7)	34(14)		3	51(21)	4.49
연도미상	7(3)	41(22)	158	7	213(25)	18.75
합계	211(104)	570(235)	307(16)	48	1,136	100

*()은 소장 자료 숫자임

때문에 CD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90년대 자료가 많다. 도서의 경우 출판된 지 오래되었거나 절판 된 경우가 많아 수집이 어려웠으며, 악보의 경우 한국 여성 작곡가회 회원명부를 토대로 그들의 작품활동을 알아보았지만 최근 10년간의 작품활동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웠다.

2) 한국여성음악 창작물의 자료 유형별 분석

음악자료를 유형별로 보면 음반자료가 가

〈표 6〉 한국여성음악 창작물의 자료유형별
(2000년 11월 30일 현재)

	수량	비율(%)
음반	570(235)	50.18
도서	211(104)	18.57
비디오	48	4.23
악보	307(16)	27.03
합계	1,136(355)	100

*()은 소장 자료 숫자임

장 많다. 음반자료는 CD만을 조사하였고 LP, 카세트테잎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악보는 클래식음악의 경우만 조사하였지만 작품별로 계산 하였기 때문에 CD 다음으로 많다.

3) 한국여성음악 창작물의 장르별 분석

① 음악도서의 장르별 분석(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0판 기준) 음악도서에

〈표 7〉 음악도서의 장르별 분석

(2000년 11월 30일 현재)

장르	수량	비율(%)
이론	132(72)	62.56
성악	33(13)	15.64
협주곡	4	1.90
실내악	12(5)	5.69
건반악기	13(5)	6.16
현악기	13(8)	6.16
관악기	4(1)	1.90
합계	211(104)	100

*()은 소장 자료 숫자임

는 한국여성에 의한 저서 및 번역서를 모두 포함시켰다. 음악 이론서가 가장 많고 그 다음, 성악관련도서가 많다. 또 실내악, 건반악기, 현악기에 관한 저서도 골고루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음반의 분야별 분석

한국여성이 남긴 음반자료는 대중가요 음반이 318종으로 가장 많다. 현재까지 파악된 여성음악인은 클래식음악 전공자가 가장 많아 549명이며, 대중가수는 112명, 여성 국악인은 44명으로 나타났다. 클래식음악을 전공하는 여성음악인 수에 비해 음반 생산량은 적은 편이며 또 대부분의 클래식 음반은 외국 음반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분야별로 본 음반 생산 현황

	수 량	비 율(%)
클 래 식	196(196)	34.39
국 악	56(39)	9.82
가 요	318	55.79
합 계	570(235)	100

*()은 소장 자료 숫자임

클래식음악의 경우 장르별로 음반생산 상황은 성악분야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현악기, 건반악기 순으로 많다. 이제까지 가장 많은 음반을 낸 여성 음악인은 조수미씨로 25장이며, 정경화씨가 11장, 장영주씨는 8장의 음반을 냈고, 그외 27명의 여성 음악인이 음반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악음반의 경우 판소리와 민요분야에서 여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악분야의 음반에서는 옛 명창들의 음반을

〈표 9〉 클래식음악 장르별 음반 파악 현황

장 르	수 량	비 율(%)
성 악	108	55.10
실 내 악	8	4.08
협 주 곡	7	3.57
건 반 악 기	26	13.27
현 악 기	43	21.94
관 악 기	4	2.04
합 계	196	100

〈표 10〉 국악 장르별 음반 파악 현황

장 르	수 량	비 율(%)
민 요	22	39.29
판 소 리	26	46.43
단 가	2	3.57
산 조	6	10.71
합 계	56	100

복각한 경우가 있었으며, 가장 많은 음반을 발표한 여성국악인은 인간문화재이었던 김소희씨로 13장의 음반을 발표하였다.

3.2.3. 웹사이트를 통한 음악창작정보 이용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여성저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여성음악인의 창작 정보를 곡명, 연주자명, 작곡자명, 장르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여성음악인의 인명정보 즉 성명, 생년월일, 혼주소, 직장, 학력, 경력, 창작활동, 상훈 등을 알 수가 있다.

또 링크되어있는 해외 여성음악정보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다. 여성음악을 다루는 중요한 웹사이트들은 다음과 같다.

- Women in Music Information
[<http://library.wisc.edu/libraries/Music/wsmc/womenmus.htm>](http://library.wisc.edu/libraries/Music/wsmc/womenmus.htm)
 - Early Music by Women Composers
[<http://150.252.8.92/www/iawm/pages>](http://150.252.8.92/www/iawm/pages)
 - Women Composers: A Bibliography of Internet Resources
[<http://www.geocities.com/Heartland/7282/women.html>](http://www.geocities.com/Heartland/7282/women.html)
 - Women Composers Collection
University of Michigan Music Library)
[<http://www-personal.umich.edu/~celliker/MusicLibrary/WCC.html>](http://www-personal.umich.edu/~celliker/MusicLibrary/WCC.html)
 - Women's Studies: Music
[<http://bailiwick.lib.uiowa.edu/wstudies/music.html>](http://bailiwick.lib.uiowa.edu/wstudies/music.html)
 -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Women in Music(IAWM)
[<http://music.acu.edu/www/iawm>](http://music.acu.edu/www/iawm)
 - Women Composers and Women's Music
[<http://www.music.indiana.edu/music_resources/women.html>](http://www.music.indiana.edu/music_resources/women.html)
 - Women in Music
[<http://www.lib.washington.edu/music/women.html>](http://www.lib.washington.edu/music/women.html)
 - She's got the beat: Women in Popular Music
[<http://shotfromthehip.com/femme/lafemme.html>](http://shotfromthehip.com/femme/lafemme.html)
 - Contributors to Canadian Life and Society, Music and Literature
[<http://www.nlc-bnc.ca/digiproj/women/>](http://www.nlc-bnc.ca/digiproj/women/)
- [ewomen95.htm>](#)
- Academic Women in Music
[<http://www.geocities.com/~cmsunday/AWM.html>](http://www.geocities.com/~cmsunday/AWM.html)

3.2.4. 음악자료 수집에 따른 문제점과 비전

자료수집에 있어 음악분야에서 여성단체는 한국여성작곡가회가 유일한 경우로 여성음악인을 파악하는 작업부터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발매된 음반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정리된 자료가 전혀 없어 각 음반사별로 내놓은 판매자료목록을 보고 한국여성이 만든 음반을 파악하였다. 악보의 경우 작곡자와 작품은 파악이 되었어도 그 자료를 기증 받거나 구입할 수도 없었다. 또한 도서와는 달리 음반의 경우는 한 음반에 여러 곡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일히 조사하여 정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 클래식 음악의 경우 각 작품에 대한 통일된 표기양식이 없기 때문에 같은 작품인데도 전혀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경우 같은 곡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통일표목이 필요하다. 또 인터넷을 통해 음악정보를 얻는데 그치지 않고 그 창작물의 내용을 원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있게 된다.

클래식음악분야의 악보나 음반자료는 음악대학 도서관 중심으로 수집 보관되고 있지만 대중가요분야 자료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특히 악보는 날장형태로 일시적으로 생산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수집 보존하게 되

면 그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게 된다. 현재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는 대중가요의 가사가 한 시대의 사회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취급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모으고 있다. 대중음악 자료를 수집하여 특수장서를 개발하고 있는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지아주립대학(Georgia State University)
대중음악 특수장서(William Russell Pullen Library Popular Music Collection)
<<http://www.lib.gsu.edu/Collections/spcoll/popmus/popmus.html>>

조지아주립대학의 대중음악장서는 20세기 미국 팝뮤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연구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특수장서로서 근래에 유명한 조지아 주 출신의 작사자, 작곡자, 가수 등에 대한 전기정보원, 악보, 편지, 사진, 음반(56000여점), 애틀란타 라디오방송 자료, 면담자료(오럴히스토리 자료), 영화음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 manuscript collection, oral histories, sheet music, videotapes, compact discs로 구분하여 접근 이용할 수 있다.

* 존스홉킨스대학(Johns Hopkins University)
대중음악 특수장서(The Lester S. Levy Collection of Sheet Music)
<<http://levysheetmusic.mse.jhu.edu>>

존스홉킨스대학의 Milton S. Eisenhower Library는 대중음악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특수장서로 178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유행했던

미국 대중음악악보 29,000 종을 소장하고 있다. 현재 이들 악보는 미국 인문과학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과 미국 음악학자인 Lester Levy 의 후원하에 디지털화(스캐닝)되어 웹사이트를 통해 보급되고 있다. 전쟁, 서커스, 음주, 금주, 댄스, 금연, 우정, 대통령, 로맨스, 학교 등 38가지 주제로 관련 악보 및 가수를 찾을 수 있어 대중가요를 통해 미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정보원이다.

4. 결 론

본 글을 통해 특수장서인 여성장서의 중요성과 여성장서개발을 위한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의 역할 및 설립이후의 활동상황을 소개하였다.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독특한 여성장서를 개발하고자 하는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가 당면한 문제점은 자금부족과 인력부족이며, 더 큰 문제점은 아직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의 필요성을 널리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막연하게 남녀를 구분하여 여성장서를 개발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해답은 국내외적으로 여성장서가 왜 많이 생기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명확해진다. 현재 국내의 여러 대학에서 여성(학)장서를 개발유지하고 있으며, 선행연구중의 한 예인 텍사스대학의 프로젝트에 의하면 현재 인터넷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미의 여성장서는 150여 개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필요에 의

해 여성장서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저자의 성을 구별하지 않고 인류가 남긴 고전작품을 전산화일로 만들어 보급하는 Project Gutenberg(<http://www.praienet.org/pg/pg-home.html>), English Server(<http://english-server.hss.cmu.edu>)와 별도로 여성 저작들만을 전산화일로 만들어 보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들도 여성저작이 교육과 연구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많은 대학들이 지난 고전 특수장서들은 전세계적으로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것이 결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이다. 한편 근래에는 아주 독특한 분야의 특수장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여러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예로써 존합킨스대학과 죠지아주립대학의 대중음악자료, 오하이오주에 소재한 볼링그린 대학의 대중문화자료, 버지니아대학의 코믹물자료, 아빌라여자대학의 종교자료, 컬럼비아대학과 캘리포니아대학의 오컬히스토리자료 등 수없이 많다.

여자대학으로써 서울여대가 한국여성을 위해, 나아가서는 우리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서울여대만이 자랑할 수 있는 독특한 특수장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여성저작정보센터에서 한국여성이 남긴 지적유산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또 이를 널리 활용되도록 하여 한국 여성들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그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널리 알리고, 후대에 물려줄 유산을 지니게 되면 이는 서울여대의 특수성으로 어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대한출판문화협회.(2000). 연도별 도서 발행
추이. 2000韓國出版年鑑, 1:자료편. 대
한출판문화협회Pp. 122-123.
- 민경찬.(1991). 국내에서 출판된 작곡집 목록.
낭만음악, 통권 11호. 낭만음악사. Pp.
223-243.
- 박온자.(1997). 여성장서구축에 관한 연구. 여
성연구논총, 제 12집.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Pp. 133-166.
- Academic Women in Music
[http://www.geocities.com/~cmsunday/
AWM.html](http://www.geocities.com/~cmsunday/AWM.html)
- The Brown University Women Writers
Project
[http://wwp.stg.brown.edu/project/staff.
html](http://wwp.stg.brown.edu/project/staff.html)
- Early Music by Women Composers
<http://150.252.8.92/www/iawm/pages>
- English Server
<http://english-server.hss.cmu.edu>
- A Guide to Uncovering Women's History in
Archival Collections University of
Texas at San Antonio
[http://www.lib.utsa.edu/Archives/links.
html](http://www.lib.utsa.edu/Archives/links.html)99/9/18
- Hildenbrand, Suzanne ed. (1986).
Women's Collection. NY: Haworth Press.
- King, Miller Patricia. (1986). Forty years of
collection on women: The Arthur and
Elizabeth Schlesinger library on the

history of women in America, Radcliff College. In Susan Hildenbrand(Ed.) Women's Collections. NY: Haworth Press. (Pp. 75-100)	<u>html>(99/09/18)</u>
The International Alliance for Women in Music(IAWM)	The UCLA Oral History Program <u><http://www.library.ucla.edu/libraries/special/ohp/ohpindex.htm>(00/09/26)</u>
<u><http://music.acu.edu/www/iawm></u>	William Russell Pullen Library. Popular Music Collection. Georgia State University <u><http://wwwlib.gsu.edu/Collections/spcoll/popmus/popmus.html></u>
The Lester S. Levy Collection of Sheet Music Johns Hopkins University <u><http://levysheetmusic.mse.jhu.edu></u>	The Women's Collection. Texas Woman's U. <u><http://twu.edu/library/wref.html>99/9/18</u>
Oral History Research Office. Columbia University <u><http://www.columbia.edu/cu/libraries/in_div/oral/index.html>(00/11/01)</u>	Women Composers: A Bibliography of Internet Resources <u><http://www.geocities.com/Heartland/7282/women.html></u>
The Orlando Project: Building Digital Resources for an Integrated History of Women's Writing in the British Isles <u><http://www.ualberta.ca/ORLANDO/orlando.htm></u>	Women Composers Collection, University of Michigan Music Library <u><http://www-personal.umich.edu/~celliker/MusicLibrary/WCC.html>00/10/17</u>
Popular Culture Library.t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in Ohio <u><http://www.bgsu.edu/colleges/library/pcl/pc12.html>(00/09/25)</u>	Women in Music <u><http://www.lib.washington.edu/music/women.html></u>
Project Gutenberg <u><http://www.praienet.org/pg/pg-home.html></u>	Women in Music Information <u><http://library.wisc.edu/libraries/Music/wsmc/womenmus.htm></u>
She's got the beat: Women in Popular Music <u><http://shotfromthehip.com/femme/lafemme.html></u>	Women's Studies: Music <u><http://bailiwick.lib.uiowa.edu/wstudies/music.html></u>
Sophia Smith Collection. <u><http://www.smith.edu/libraries/special></u>	